

[나와 《길림신문》]

한평생을 함께한 깊은 인연



저자 오기철

우리말 속담에 “웃것을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와 《길림신문》의 인연은 ‘웃것을 스치는 인연’보다 더 깊게 맺어진 인연이라고 말하고 싶다.

내가 감히 이 말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1985년 3월에 내가 연변일보사에 입사하자 동년 4월 1일에 《길림신문》 창간호가 세상에 고고성을 울렸으니 나의 기자 생일과 《길림신문》 생일이 동년동월이라고 나는 자랑했다.

내가 2006년에 정년퇴직을 했을 때 《길림신문》이 연변특간인 ‘연변 25시’를 꾸리기로 결정하였고 3월 20일에 나를 ‘연변 25시’에 초빙하면서 나의 ‘기자생활’이 이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9년 3월 28일에 나를 《길림신문》 특약평론원으로 초빙한 데서 나는 ‘평생기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2015년에 《길림신문》 창간 30주년을 맞으며 길림신문사 편집부에서는 길림신문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묶은 책 《길림신문사 사람들》을 출판하였는데 그 책을 펼치니 ‘시내물이 모여 바다를’ 전문란에 〈후반생에 넣은 더 멋진 ‘꿀’〉이라는 나의 글이 실려있었다. 그외에도 ‘현 계약직원’ 전문란에 나의 이름까지 있었으니 나는

더없는 영광과 자랑으로 감개무량하였다.

나는 2006년부터 시작된 《길림신문》과의 ‘한집’ 생활 체득을 이런 한마디로 총화한다.

—나는 한알의 밀씨앗, 《길림신문》은 땅이고 편집기자들은 그 땅에서 밀을 잘 키운 원예사이다.

《길림신문》은 ‘백성신문’

나는 《길림신문》 ‘연변 25시’ 창간자의 한 사람이다. 내가 2006년 3월 20일에 초빙된 후 3월 28일에 ‘연변 25시’가 세상에 고고성을 울렸다. ‘연변 25시’를 꾸리면서 당시 연변 특간의 주필인 고 박금룡 주임은 수시로 나와 고 정경락 고문을 불러놓고 ‘연변 25시’의 취지를 토론했고 나중에 ‘연변 25시’ 취지를 ‘백성 중심, 백성봉사, 백성참여’ 12자로 결정지었다.

나는 박금룡 주임의 한쪽 팔이 되어 ‘독자의견’란을 책임맡았다.

‘연변 25시’는 흥미있는 다양한 내용들로 전문란을 꾸렸고 120여편의 독자의견을 신기도 했다. 그때 신문에 ‘따뜻한 의견’을 내놓은 훈춘시 마천자향 오일존의 리광렬 등 6명에게는 상금을 내주기까지 했다.

‘연변 25시’는 2008년 3월 25일 100기 출간에 조선문 신문 사상 처음으로 통신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참여 25시’ 특집면을 꾸리고 6명 통신원을 특약기자로 초빙하여 많은 독자와 사회의 호평을 받았다.

《길림신문》은 ‘해결사’

몇가지 사례로 《길림신문》의 ‘해결사’를 살펴본다.

2006년 10월 31일, ‘연변 25시’는 〈대학생 영결미를 살립니다!〉는 기사를 첫 시작으로 거리에 프랑카드를 내걸고 모금을 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연속보도를 조직하면서 전사회적인 사랑의 손길을 쟁취하여 영결

이의 병치료에 필요한 자금을 모아주었다.

2006년 9월 19일, 《길림신문》은 〈신흥촌 80헥타르 경작지를 언제면 돌려주나?〉란 톱기사를 실어 지난 세기 70년대에 모 부문에서 징용했던 왕정현 하마탕향 신흥촌의 80헥타르의 경작지를 신흥촌 농민들이 다시 경작할 수 있게 힘써주었다.

《길림신문》의 주선과 도움으로 도문시 석현진 향양촌에서는 30년전에 불법적으로 처리했던 옥토 1.5헥타르를 농민들에게 돌려주었다. 하여 향양촌에서는 편집부에 감사기를 증정했었다.

도문시보일라공장에서 수년간이나 해당 부문에 신소하던 안건을 《길림신문》이 접수하고 수년간의 구체적인 조사와 연속적인 보도를 통해 변전소를 되찾아주었는데 공장장이 직접 편집부에 감사신과 감사기를 보내오기도 했다.

2006년 4월 25일, 《길림신문》은 지난 세기 50년대초에 농민들이 농촌 생산협작사, 농촌신용협작사, 농촌공소협작사 입사 시 입고한 세가지 고금을 두고 〈50년대 고금 왜 아직까지 결산해주지 않는가?〉는 내용을 실었다. 그후 계속하여 지상토론을 벌이고 지상토론의 내용을 성 해당 부문에 반영하여 답복을 받아냈는바 수십년간 농민들이 갈망하던 문제에 해답을 주었다.

2006년 11월 28일, 《길림신문》은 〈기념탑 옮겨야만 하는가?〉는 톱기사로 도문시정부에서 도문의 쏘련홍군기념탑 (백탑)을 옮기려고 자라까지 정한 결정을 바로잡고 기념탑을 옮기지 않고 새롭게 단장하도록 하였다. 《길림신문》에 실린 기사를 계기로 도문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3차례나 《길림신문》 기자인 나를 청해 토론 건설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 조선족들의 한국 방문취업을 돕기 위해 《길림신문》은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었다.

《길림신문》은 나의 책임감을 담는 ‘그릇’

‘연변 25시’가 한창 세상에 알려질 때 편집부에서 ‘신문에는 언론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나는 매주 한편의 ‘일사일인’ 칼럼을 쓰겠다고 표하고 시종 일관 6년간 견지하였다.

나는 나의 칼럼이 혹여 지면 랑비가 되지 않을가 우려했는데 다행히도 독자들에게 즐겨 읽히는 글이 되고 ‘일사일인’은 필자의 책임감을 담는 ‘그릇’으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길림신문》 덕분에 받은 독자들의 사랑, 격려, 기대, 부탁으로 2012년에는 《길림신문》에 발표한 칼럼을 묶어 《기자는 사회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이다》를 출간하였다.

나는 한국이나 일본에 가는 기회에도 《길림신문》 기자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다.

일본에 갔을 때 나는 재일본 조선족 1세대의 삶의 현장을 취재하느라 아들까지 동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20여명의 류학생을 취재하여 《길림신문》과 중앙인민방송국에서 계열 보도를 진행하였다. 하여 2017년에는 《길림신문》과 중앙인민방송국에서 보도한 재일본 조선족 1세대 삶의 현장 인터뷰로 《왜 갔느냐 일본에, 왜 사느냐 일본에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고 일본에서 발행식까지 가졌다.

이 밖에도 내가 《길림신문》에 계열로 보도한 오기철, 김수철, 최원, 송해숙 등 주인공들은 국가급 도덕기존명, 가정모범과 연변주 본보기 인물로 부상했다.

《길림신문》에서 뛰어다니던 때 나는 ‘동북 3성 4대 언론사’와 중앙인민방송국에서 조직한 응모 활동에 참가하여 최우수상, 동상 등 상을 다섯번이나 수상하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영예를 《길림신문》에 돌리며 감사와 보답으로 하루를 살아도 여한이 없이 질적으로 살려고 힘차게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맺는다.

© 오기철

[전망대]

꿀씨팀 누르고 홈장 6连胜 쟁취하라!



제 12 라운드 볼산남시팀과 연변팀 경기의 한 장면 / 연변룡정축구구락부

6월 22일 오후 3시, 연변룡정커시안팀 (이하 ‘연변팀’)은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 광서평과팀 (이하 ‘광서팀’)을 불러들여 2025 화운음료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현재 1승 3무 8패, 6점으로 꼴찌 순위에 머물러 있지만 광서팀은 연변팀과의 갑급리그 4차 교전에서 3승 1무의 무패행진으로 자신심을 갖고 있는 팀이다. 하기에 광서팀과의 경기에서 연변팀은 절대 소홀해서는 안되며 홈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물이 오른 상호 배합으로 상대를 기전제압하고 경기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

광서팀의 올 시즌 성적 부진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소주동오, 정남갑련, 중경동량통과 같은 팀들과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고 청도홍사를 홈장에서 제압한 경기 사례들을 보면 팀이 정상적으로 발휘하면 강팀과도 대등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변팀에 패한 심수청년인, 대련곤성 등 팀들과는 연달아 패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광서팀은 실력 발휘에 기복이 큰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서팀은 5-4-1 진영을 위주로 변화를 보이는 팀인데 현재까지 리

그 최소 득점 (7 득점) 과 최다 득실차이 (-13)를 기록하고 있다. 공수 평형이 잘 되지 않는 팀이다. 비록 팀에 마터우스 (9번), 장해 (3번), 아사모아 (10번), 양경범 (17번), 부상 (29번), 장자립 (16번), 호가진 (8번), 황위 (45번), 갈해륜 (6번) 등 비교적 우수한 선수들이 있지만 프로축구는 한두사람의 실력으로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운동 종목이 아니다.

연변팀에서 마터우스를 비롯한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격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중원에서 공쟁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진영을 내밀면 더 좋겠지만 흑간 내리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전술로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상대 수비선의 체력 소모를 유도하여 역습을 조직하는 것도 꽤 연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홈장 5连胜으로 상위권에 도전하는 연변팀이 경기 초반부터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고 경기 주도권을 거머잡으면 홈장 6连胜은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기형 감독과 연변팀 선수들이 현장을 찾는 축구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선물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 김태국기자

“우리 둘째아이도 이 학교에 입학시키겠습니다”



6월 12일, 장춘시특원구조선족소학교는 신입생 학부모 (이하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학교 개방일’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활동을 직접 체험하고 가정과 학교가 함께 아이를 키워나가는 취지로 마련됐다.

오후 2시, 학교를 찾은 40여명의 학부모들은 김영철 교장의 환영 인사와 함께 참관 일정을 시작했다. 김영철 교장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이 가장 중요함이다.”라며 학교의 발전 과정과 교육 특색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김영철 교장의 안내로 학교 곳곳을 둘러보았다. 식당, 체육관, 운동장, 교수청사, 동아리실 등을 방문하며 학교의 전반적인 환경을 살펴보고 학생 대표들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교내 벽보 해설에 감탄했다.

특히 4층과 5층에서 펼쳐진 다양한 행사들이 학부모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선족 전통 무용 〈장고춤〉을 추는 아이들, 실험실에서 진지하게 실험에 몰두하는 아이들, 미술실에서 창의력 넘치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학부모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참관수업후 마련된 학부모 교류 시간에는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큰아들이 이 학교에

보낸 뉴너사는 “선생님들이 매우 다정하시고 학생들의 레절 바른 모습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둘째아이도 이 학교에 입학시킬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들도 “아이들이 정말 활기차고 사랑스럽습니다”, “선생님들의 따뜻한 지도가 느껴집니다.”라며 학교에 신뢰와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학교 개방일은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였는바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육 리념과 특색 교육, 다채로운 교내 활동을 직접 경험하며 아이들의 미래 성장에 기대와 희망을 품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장춘시특원구조선족소학교는 1959년에 설립되어 네차례의 소재 이동과 교육자들의 노력 끝에 지금은 ‘길림성민족단결진보선진단위’로 자리잡았다. 학교는 유치원 (재학생 56명) 과 소학교 (재학생 271명) 로 구성되어있으며 교직원이 43명 (유치원 9명 포함), 이중성, 시급 우수교사가 11명이다. 최근 몇년간, 특원구조선족소학교는 선후로 ‘전국교정축구특색학교’, ‘길림성미육 (美育) 특색학교’, ‘길림성교육학원민족기초교육교수연구기지 학교’, ‘길림성활력운동장건설학교’ 등 칭호를 수여받았다.

/ 주동 류항휘 최화 기자

대학입시 채점 어떻게 진행될까?

2025년 대학입시가 답안지 채점 단계에 진입했다. 북경 대학입시 답안지 채점 작업은 11일 정식 가동되어 6월 24일 전부 끝날 예정이다. 올해 북경은 북경대학, 청화대학, 북경사범대학 등 6개 대학에 각각 대학입시 답안지 채점소를 설치했다.

지난 16일, 북경시 2025년 대학입시 답안지 채점 업무 매체 개방일을 맞아 중앙방송총국 기자는 청화대학에 위치한 수학 답안지 채점소를 탐방했다.

기자가 청화대학 수학 답안지 채점소에서 목격한 데 따르면 이곳은 완전 폐쇄식 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검사문과 금속탐측기를 설치했으며 안전 인원이 엄격히 검증하고 안전검사를 진행한 후에야 입장할 수 있었다. 어

떠한 종이, 이동통신, 저장 장치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시험지 채점 현장의 네트워크 연결은 근거리 통신망을 리용하여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격리된다.

소개에 따르면 답안지 채점 절차 면에서 답안지를 스캔한 후 암호화 수단으로 수험생의 정보를 숨긴다. 객관식 문제는 채점 시스템이 자동으로 문제를 식별해 표준 답안에 따라 직접 채점하고 주관식 문제는 같은 문제에 대해 2명의 채점 교사가 평균치를 매기는 채점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경교육고시원 부원장 주옥령은 “주관식 문제가 몇개 부분으로 나뉘어 무작위로 채점 교사들에게 배포된다.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사들은 모두 나뉘준 문제만 채점할 뿐 수험

생의 시험지 전체를 훑어볼 수 없다. 만약 ‘이중평가’가 립계지를 초과하면 반드시 세차례 또는 네차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채점 전문가는 매일 일정한 비율의 시험지에 대해 표본 검사를 하고 3차-4차 채점을 거친 시험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부 재검사를 해야 하며 채점 과정에서 발견된 규정 위반이나 류사한 채점 등 이상 상황은 모두 학과 채점팀에서 단체로 연구 처리한다.”고 소개했다. 각 과목 답안지 채점이 끝난 후 북경교육고시원은 전문인원을 조직하여 답안지 채점 데이터에 대한 전문적 재검사를 진행하여 성적 정보의 절대적인 정확성을 확보한다.

시험지 업무의 규범화 관리와 품질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각 채점소는 시험평가, 교육훈련, 정평과 재검사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채점 업무의 공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청화대학 학생모집관공실 주임 양범은 “전문가소조 예비회의, 전문가소조 시범평가회의, 품질소조와 대소조장 시범평가회의 등을 통해 평가 기준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수험생의 답변 상황에 결부하여 엄격한 채점 세칙을 제정했다. 채점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 채점 인원을 조직하여 엄격한 업무 훈련을 진행함으로써 채점 과정에서 채점 세칙에 대한 파악이 엄격하고 적절하며 앞뒤가 일치하도록 보장한다.”고 말했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대학입시 지원서를 작성할 때 뭘 주의해야 할까?

2025년 전국 대학입시 지원서 작성일이 6월 26일부터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수험생은 어떤 중요한 단계나 세부사항을 료해하고 주의해야 할까?

■ 정책 숙지, 정보 수집

수험생과 학부모는 해당 성, 직할시, 자치구의 최신 대학입시 지원 정책을 리해해야 하며 지원 방식과 시간 배치를 중점을 두고 정해진 시간내에 반드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집단계와 지원 규칙에 대해서도 부동한 모집단계의 합격 순서와 세부사항

을 알아야 한다.

■ 목표 대학, 전공 및 도시를 초보적으로 정하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지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중 하나이다. 대학입시 모집에서는 일정 범위내의 학생들을 그들이 작성한 지원과 대학입시 성적에 따라 순위를 매겨 높은 순서대로 입학시킨다. 순위가 높을수록 합격 기회도 커진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전에 수험생은 평소 성적이나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학급, 학교,

심지어 전체 성, 시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료해하며 목표 대학, 전공 및 도시를 초보적으로 정하여 지원서에 대한 대체적인 선호와 방향을 형성할 수 있다.

■ 목표 대학의 상황 깊이 파악하기

전공은 수험생 지원 선택의 핵심 요소로 일반적으로 학생의 학습 취미, 직업 발전 방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각 대학과 전공의 점수선, 모집계획, 캠퍼스 상황을 충분히 료해하고 학교의 교육실력,

공부체험, 학교환경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목표 대학과 전공을 비교 분석 선별하기

명확한 지원 의사가 있는 대학과 전공에 집중한 후 수험생과 학부모는 지원시간의 단계적 설정에 주의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고, 중, 저 조합의 방식으로 지원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배치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떨어질 위험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